全羅日報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007면 지역

가공식품 생산농 "온라인 판매 어렵지 않아요"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교실
군산농기센터, 6회 26명 진행

군산농기센터가 전산교육장에서 '라이브커머스' 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전산교육장에서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 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는 꿀, 잡곡, 고구마 등 농산물과 미니 사과소스, 조청, 선식, 밀키트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6명의 농업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를 초빙, 집합교육 및 1:1 농장주 컨설팅 과정을 거쳐 라이브 방송 판매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온라인시장에 대한 이해, 상품별 판매전략, 라이브 방송 진행 방법, 방송 장비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해 전문 쇼호스트를 비롯한 전문강사진을 구성, 최종적으로 농가 생산물 실전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배우도록 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산물 판로 확보가 어려운 농업인들의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교육생들의 기대가 높다. 군산시는 올해 6회 24시간의 기초반 과정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급반과 실습반을 개설해 심도 높은 교육 진행으로 온라인마케팅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2월 완공하는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 내에 라이브커머스 전문 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농업인들에게 장비 활용과 임대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군산=강경창기자

全北日報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007면 자치시대

군산 농기센터, 온라인마케팅 교실 운영

가공식품 생산 농업인 26명 참여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전산교육장에서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 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 및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꿀·잡곡·고구마 등 농산물과 미니사과소스·조청·선식·밀키트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6명의 농업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 상품별 판매전략, 라이브방송 진행방법, 방송장비 활용방법 등으로 전문 쇼호스트를 비롯한 전문강사진을 구성, 최종적으로 농가 생산물 실전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배워볼 예정이다.

이번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교육은 농산물 판로확보가 어려운 가공식품 생산 농업인들의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교육생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이번 온라인마케팅 교실 기초반 과정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급반과 실습반을 개설해 심도 높은 교육진행으로 라이브커머스 온라인마케팅 전문가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2월 완공하는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 내에 라이브커머스 전문 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농업인 교육생들에게 장비활용 및 임대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김미정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온라인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이뤄 매출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새전북신문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라이브커머스 온라인마케팅 교실 운영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마케팅 교실을 꾸린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전산교육장에서 '라이브커머스' 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꿀과 잡곡, 고구마 등 농산물과 미니사과소스, 조청, 선식, 밀키트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6명의 농업들의 참여로 전문가를 초빙, 집합교육 및 1:1 농장주 컨설팅 과정을 거쳐 라이브방송 판매능력을 돕는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온라인시장에 대한 이해, 상품별 판매전략, 라이브방송 진행방법, 방송장비 활용방법 등으로 전문 쇼호스트를 비롯한 전문강사진을 구성, 최종적으로 농가 생산물 실전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익힌다.

시는 올해 6회 24시간의 기초반 과정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에는 고급반과 실습반을 개설해 온라인마케팅 전문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김미정 시 농촌지원과장은 "농산물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교육과정 개설과 라스브커머스 방송실 구축에 이르렀다"며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이뤄 매출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용규 기자

전북연합신문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007면 지역

군산, 라이브커머스 '장사의 신' 키운다

온라인마케팅교실 운영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 및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3일부터 11월27일까지 6회에 걸쳐 전산교육장에서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 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는 꿀, 잡곡, 고구마 등 농산물과 미니사과소스, 조청, 선식, 밀키트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6명의 농업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상품별 특성을 감안해 전문가를 초빙, 집합교육 및 1:1 농장주 컨설팅 과정을 거쳐 라이브방송 판매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온라인시장에 대한 이해, 상품별 판매전략, 라이브방송 진행방법, 방송장비 활용방법 등으로 구성했으며 전문 쇼호스트를 비롯한 전문강사진을 구성, 최종적으로 농가 생산물 실전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배워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산물 판로확보가 어려운 농업인들의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교육생들의 기대가 높다.

시는 금년에 6회 24시간의 기초반 과정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에는 고급반과 실습반을 개설해 심도 높은 교육진행으로 온라인마케팅 전문가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2월 완공하는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 내에 라이브커머스 전문 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농업인들에게 장비활용 및 임대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농산물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라이브커머스 교육과정 개설과 라스브커머스 방송실을 구축하게 됐다"며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이뤄 매출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 송기문 기자jbskm@naver.com

전북제일신문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007면 지역

농산물판매 '장사의 神' 키운다

군산시,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 적극 나서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 및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

센터는 오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전산교육장에서 '라이브커머스'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꿀, 잡곡, 고구마 등 농산물과 미니사과소스, 조청, 선식, 밀키트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6명의 농업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상품별 특성을 감안해 전문가를 초빙, 집합교육 및 1:1 농장주 컨설팅 과정을 거쳐 라이브방송 판매 능력을 배양한다.

교육내용은 온라인시장에 대한 이해, 상품별 판매전략, 라이브방송 진행방법, 방송장비 활용방법 등으로 구성했으며 전문 쇼호스트를 비롯한 전문강사진을 구성, 최종적으로 농가생산물 실전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배워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산물 판로확보가 어려운 농업인들의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교육생들의 기대가 높다.

시는 올해 6회 24시간의 기초반 과정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고급반과 실습반을 개설해 심도 높은 교육진행으로 온라인마케팅 전문가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이번 교육이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이뤄 매출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찬우 기자

전북도민일보
2023/10/19 목요일
010면 지역

군산시, 지역농민 대상 교육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군산시가 농산물 판매 '장사의 신'을 키운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민의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및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통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는 꿀, 잡곡, 고구마 등 농산물과 미니사과소스, 조청, 선식, 밀키트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6명의 농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별 특성을 감안해 전문가를 초빙, 집합교육 및 1:1 농장주 컨설팅 과정을 통한 라이브방송 판매 능력 제고에 역점을 둔다.

교육은 온라인시장 이해, 상품별 판매 전략, 라이브방송 진행방법, 방송장비 활용방법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전문 쇼호스트를 비롯한 전문 강사진이 나서 농가 생산물 실전 판매 기법이 전수된다.

따라서 농산물 판로확보가 어려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센터는 또 오는 12월 완공하는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 내 라이브커머스 전문 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농민들에게 장비활용 및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축적된 노하우로 고급반과 실습반을 개설해 심도 높은 교육진행으로 온라인마케팅 전문가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군산시 농촌지원과 김미정 과장은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이뤄 매출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